

정읍시 '단이와 풍이' 전국 최고 캐릭터 노린다

윤 김진엽 기자 | 승인 2020.09.07 16:05

문체부 주최 '우리동네 캐림픽' 출전...온라인 투표 시민참여 당부



정읍시의 시목(市木)인 단풍나무의 잎을 캐릭터화한 '단이와 풍이'가 전국 캐릭터 대상 선발대회인 제3회 우리동네 캐림픽에 도전장을 던졌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우리동네 캐림픽'은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대표 캐릭터 가운데 최고의 캐릭터를 뽑는 캐릭터 올림픽이다.

이번 대회의 예선전은 온라인 투표(80)와 전문가 심사(20)로 진행되며, 총 32개 캐릭터(지역부문 16개, 공공부문 16개)가 본선에 진출한다.

온라인 투표는 우리동네 캐릭터 홈페이지(ourcharacter.kocca.kr)에서 오는 10일까지 본인 인증을 거쳐 1인 1표에 한해 참여할 수 있다.

본선을 거쳐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되면 집중 컨설팅과 홍보·마케팅 지원을 받으며, 캐릭터 전문가 특강 특전도 주어진다.

2001년 처음 개발된 ‘단이와 풍이’는 특유의 발랄함을 무기로 시민과 관광객에게 친근한 캐릭터로 다가가고 있다.

특히, 지역 특산품과 맛집, 관광명소 홍보는 물론 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SNS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우리동네 캐림픽에 출전한 ‘단이와 풍이’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관광산업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진엽 기자